

금호타이어, 난징공장 이전 불가피

이전 · 폐쇄 3고2저 해당으로 선정 ... 테진공장도 3C인증 중단 타격

금호타이어의 중국 난징(Nanjing) 공장이 환경오염 때문에 이전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난징시는 7월5일 금호타이어를 포함해 오염,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효율성, 생산성이 떨어지는 <3고2저>의 관내 173개 기업을 생산정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기업은 이른 시일 안에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난징 공장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까지 다른 공장부지를 물색한 후 이전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화공단지 주변에 주택들이 들어서며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2011년 초부터 공장이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됐다”며 “난징시는 이른 시일 안에 공장을 이전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부지 선정 때문에 공장이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가스가 주변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지적을 받은 금호타이어는 3월15일 소비자의 날에 품질불량 기업으로 지정돼 텐진(Tianjin) 공장의 <3C인증>이 2개월 반 동안 중단된데 이어 난징공장이 생산정지 대상으로 지정돼 중국사업에서 난관이 지속되고 있다.

3C인증이 중단되면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은 중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난징시의 생산정지 대상에는 글로벌기업과 국유기업 등 대기업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난징시는 3월 양웨이쩌(楊韋澤) 난징시 서기가 새로 부임하며 환경오염 유발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양웨이쩌 서기는 “화학공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난징시의 가장 큰 문제로 부상했다”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올라가도 환경오염으로 주민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오염산업 퇴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난징시는 173개 제조기업의 이전 또는 생산정지로 줄어드는 일자리와 경제성장률을 보충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서비스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06>